

국내외 여성 이슈

(2015. 10~12)

• 국내외 여성 이슈

• KWDI 동정

국내외 여성 이슈

(2015. 10~12)

●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세계 116위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차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 평등 순위는 145개 국가 중 115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세계 116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비슷한 일을 할 때 임금 평등도' 항목에서의 점수가 0.55점(가장 높은 점수는 1점(평등), 가장 낮은 점수는 0점(불평등))에 그쳤다¹⁾. 임금 평등의 상위항목인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부문 점수는 0.557로 9년 전(0.481)보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의 증가추세에 못 미치면서 순위는 2006년(96위) 대비 크게 하락한 125위로 나타났다.

남녀 임금격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 일자리 및 비정규직 종사 비율이 높은 것이 주요하다고 지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²⁾, 2015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중 남성은 288만 2000명인 반면 여성은 50만명 이상 많은 339만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1년 전보다 13만 8000명이 늘어 전년대비 증가율 4.3%로 남성의 비정규직 증가 폭(2.0%)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여성의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30대부터 결혼 및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M자 곡선을 나타낸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일·가정양립지표'³⁾에 따르면 15~54세의 전체 기혼여성 942만 명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은 205만 3000명(2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은 4~50대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만, 경력복귀 여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제공되지 않는 상황⁴⁾이 남녀 임금격차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 매일경제, "한국 남녀 임금 차별 심해"…세계경제포럼 성차별 보고서 결과 '세계 116위' 그쳐, 2015년 11월 19일

2) 통계청,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2015년 11월 4일.

3) 통계청·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지표」, 2015년 12월 7일.

4) 국민일보, 「[OECD 노동개혁 보고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에 총력 기울여라」, 2015년 12월 8일.

남녀의 연금수급액 격차는 노인여성 빈곤으로 이어져

한편, 여성들의 경력단절 및 높은 저임금 일자리, 비정규직 비율 등은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한 남녀 격차로 이어진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수급액은 기본적으로 임금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저임금은 저연금으로 이어지고, 여성은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지면서 연금수급액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⁵⁾.

여성의 국민연금금액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여성의 빈곤상태 지속 및 심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 실제 노인인구 대비 국민연금 수급률을 살펴보면, 남성 전체의 45.5%가 국민연금을 받는 반면, 여성 노인의 수급률은 20.3%에 불과하다. 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의 경우, 남성노인은 56.2%, 여성노인은 72.5%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1.3배 높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나타낸다⁶⁾.

국민연금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4년 국민연금 생생통계'⁷⁾에 따르면 여성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연금 평균가입(64개월)은 남성(151개월)의 4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⁸⁾, 여성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1,305,561원으로 남성(2,213,932원)의 61.5%에 그쳤다.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금 시행 초기인 1993년 남성 가입자가 373만3416명(72.5%)에서 2013년 1194만7691명(57.6%)으로 증가한데 비해 여성은 1993년 141만2958명(전체 가입자의 27.5%)에서 2013년 879만7089명(42.4%)으로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가입자 수 면에서 성별 격차가 많이 줄어든 셈이지만 연금수급액 간 남녀 성별 격차는 여전하다. 특히 여성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은 130만5000원으로 전체 베이비붐 세대 기준소득월액(178만1천원)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장차 여성의 노후소득 불안으로 이어져 여성노인 빈곤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⁹⁾.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 전기에 접어드는 65세 이상 74세 미만 여성 빈곤율은 57.7%로 남성 빈곤율 34.3%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¹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향상 및 여성 정치 참여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점차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임금 및 연금소득 등에 존재하는 실질적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한겨레, “남녀 임금격차 → 연금격차 → 여성노인 빈곤으로”, 2015년 12월 15일.

6) 장미혜 외(2013),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국민연금연구원, 「2014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5년 10월 16일.

8) 중앙일보, “여성 베이비붐 세대 국민연금 가입 5년5개월”, 2015년 10월 17일.

9) KBS TV, “여성 베이비붐 세대 국민연금 가입 기간 64개월”, 2015년 10월 16일.

10) 장미혜 외(2013),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정임금법 제정

국내 남녀임금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된 ‘캘리포니아 공정임금법(California Fair Pay Act)’을 눈여겨볼만하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전일제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84%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후 추진됐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여성 근로자는 2016년부터 성별 임금격차를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는 기존 캘리포니아 동일임금법(California Equal Pay Act)을 확대함과 동시에 관련 연방법과 비교해도 진일보한 조치이다¹¹⁾. 이 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 임금이 여성보다 높을 경우 이 차이가 성별 외 다른 요인에서 기인함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하며, 남성은 근무년수, 근무성적 등에 의해서만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직책이나 직함이 다르더라도 실제 하는 일이 비슷하면 고용주는 동일임금을 지불해야 한다¹²⁾.

성별 임금 차분을 입증할 의무를 고용주에게 명시한 캘리포니아의 공정임금법은 남녀 간 동일임금을 대전제로 한다는 점, 입증하기 어려운 임금격차는 불공정한 대우임을 분명히 한 점에서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 G20 공동으로 IS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별도 성명 발표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 테러대응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2015년 11월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을 발표하였다¹³⁾.

성명을 통해 파리와 앙카라에서 벌어진 테러로 희생된 유가족과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하고, 테러 조직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연대행동을 지속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특히 테러리즘이 종교, 민족, 문명 등 집단 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테러행위 조장 및 폭력 미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체계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테러 등 신체안전에 대한 위협 상황에서 여성의 위기대처 능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알

11) News1 뉴스, “美캘리포니아주 남녀 임금격차 해소 ‘공정임금법’ 마련”, 2015년 10월 7일.

12) 중앙일보, “가주, 남녀 임금 평등시대 열었다”, 2015년 10월 7일.

13) 여성신문, “G20, IS 테러 위협 대응 협력 의지 밝혀, 첫 별도성명 채택”, 2015년 11월 16일.

14) 장미혜(2015). “젠더관점에서 재난위기와 대응을 다시보다”, 젠더리뷰(36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려져 있다¹⁴⁾. 이번 테러에 대한 주요국가의 공식적 대응은 향후 테러 상황 및 분쟁 국가 내 여성 인권과 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반테러 움직임이 이슬람 여성에 대한 암묵적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캐나다 남녀동수 내각 출범

쥘스탱 트뤼도(43) 자유당 대표는 4일 23대 총리로 취임하면서 캐나다 역사상 최초의 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하였다¹⁵⁾.

이번 새 각료 30명은 남녀가 각 15명으로 같을 뿐 아니라 연령 및 출신 지역, 경력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된 완벽하게 캐나다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원주민 부족 출신의 법무장관,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의 메리엄 민주제도부 장관 등 출신 특성을 고려한 각료 선임은 다문화·다인종 대표국가로서의 캐나다 위상을 높이고, 각층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 입안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각구성 뿐 아니라 2015년 10월 구성된 의회 역시 26%의 여성의원과 10명의 무슬림 의원이 포함되어 역사상 가장 다양성 있는 의회로 기대를 모았다. 이러한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는 여성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의 참여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녀 동수 내각의 출현이 캐나다가 처음인 것은 아니다. 2006년 칠레, 2012년 프랑스가 각각 남녀 동수 내각을 꾸린 바 있고, 2008년 스페인의 경우, 여초내각이 구성된 경우도 있었다¹⁶⁾. 또 2015년 11월 기준 핀란드 장관의 62.5%가 여성이고, 전 세계 여성장관비율은 17.7%가 평균이다¹⁷⁾. 반면 한국의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일하다.

이러한 정치권 내 여성 과소대표성을 극복하고 20대 총선에서의 여성 30% 실현을 위해 범여성계는 12월 17일 열린 범여성계 결의대회를 통해 여성 30% 실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¹⁸⁾.

15) 여성신문(2015), “캐나다 ‘페미니스트’ 총리 취임 후 남녀동수 내각 출범”, 2015.11.5

16) MK오피니언(2015), “트뤼도의 남녀평등 내각”, 2015.11.9.

17) 여성신문(2015), “양성평등, 국제 기준에 맞춰라”, 2015.12.16

18) 여성신문(2015), ““신설 지역구 여성에게 공천해야” 범여성계 결의대회”, 2015.12.17

KWDI 동정 (2015. 10 ~ 12)

해외학자 초청 컨퍼런스



우리 연구원은 10월 5일(월)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통일한국사회의 여성·가족정책 과제”를 주제로 해외학자 초청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5~2016년 2개년에 걸쳐 수행하고 있는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 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독일, 베트남, 중국 등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체제통합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각 국가들의 사회통합과 여성·가족정책 전개과정 및 추진정책들을 살펴보고,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 및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정책협의회(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SSAGE)) 및 미얀마 성과확산 세미나



우리 연구원은 10월 5일(월)~10월 9일(금)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아태지역 여성개발을 위한 정책협의회(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 (SSAGE))” 및 “미얀마 성과확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아태지역 양성평등 정책인프라 강화사업(V): 사업의 성과와 한국의 성 평등 원조 확대방안」 연구사업의 일환인 이번 행사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4개 협력국의 여성정책담당부처와 관련부처의 여성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향후 한국의 성평등 원조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우리 연구원은 10월 16일(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여성연맹과 공동으로 2015 한국-베트남 여성 포럼을 개최 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주요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방안 모색'으로 여성의 정치와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대표성 제고방안에 대한 양국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연 1회 베트남과 한국에서 교차로 열고 있는 한국-베트남 여성 포럼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베트남 여성연맹과의 교류협력은 물론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의 각 분야 여성 관계자들이 양국 여성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모여 소통하고 뜻을 모으는 소중한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98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우리 연구원은 10월 20일(화)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대응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98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명선 원장은 “여전히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약하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해도 피해자 중심의 응급 조치 및 가해자 분리조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에서의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포럼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경찰의 가정폭력 초기 대응과 관련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습니다.

양성평등 국가포럼



우리 연구원은 2015년 11월 18일(수)에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오키드룸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박영아), 여성신문(대표 김효선)과 공동으로 '양성평등 국가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20주년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정책을 되돌아보고 양성평등을 통한 미래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모니터링 성과포럼



11월 24일(화)에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우리 연구원이 주관한 '2015년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모니터링 성과포럼'이 열렸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함께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지난 5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현장 애로사항 점검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인력 활용 가능성이 높은 3대 직종인 문화콘텐츠, 산업 R&D(연구개발), ICT(Information&Culture Technology·정보문화기술) 분야 현장의 일·가정 양립 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제7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



우리 연구원은 12월 14일(월)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국제개발 아젠다로서의 젠더: 동북아 3국의 Beijing+20 평가 및 SDGs 이행전략”을 주제로 제7차 개발과 젠더에 관한 아태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2015년 Beijing +20 이행 평가와 Post-2015 개발체제 수립을 마무리하는 획기적인 시점에서, Beijing+20 이행 성과 검토와 Post-2015 개발체제에서의 젠더의제 통합전략을 재점검하는 대중 인식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주요 3국의 Beijing +20 성과와 향후 전략 및 과제를 논의하고 공유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양성평등 발전을 위한 연대를 모색함과 동시에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의 MOU 체결기관을 포함한 국제 전문가를 초청함으로써 2015년 Beijing +20 성과의 확산 및 Post-2015 개발의제에서의 젠더의제 통합을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의 긴밀한 연대와 전략을 모색하는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협의회



우리 연구원은 12월 14(월) 여성가족부 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권용현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정책 추진 시에 필요한 연구과제들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연구자문위원회



우리 연구원은 12월 15일(화)과 17(목) 양일에 걸쳐 연구원 회의실에서 2015년 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6년도 여성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2017년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연구원은 12월 22일(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과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진행해 온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명선 원장은 "2015년 우리 연구진에서 실시한 여성안전과 폭력예방, 양성평등과 여성가족패널, 다양한 가족유형별 정책, 여성고용과 일·가정양립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는 자리인 만큼, 본원의 연구결과가 국정과제와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국민과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습니다.